산은 산일까? 돈일까? 아님 뭘까?

(시편 8:1~9)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산은 산일까? 돈일까? 아님 뭘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산은 산일까? 돈일까? 아님 뭘까?'
고인이 되신 성철 스님의 법어 중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찬양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산은 여호와의 이름이고 물도 여호와의 이름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 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일까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왜 산은 여호와의 이름이고 물도 여호와의 이름인 것일까요?
강릉에서 살다보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성철 스님의 이야기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강릉에서 가까운 곳에 월정사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산채나물로만 반찬을 만들어냅니다. 산채비빔밥이나 산채정식 등을 파는 먹거리 마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기업이고 돈입니다. 산에서 나는 수많은 산나물과 더덕과 버섯 등을 따서 장사를 하십니다.
한편 공원으로 지정된 산에서는 나라에서 채취를 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토리 떨어진 것을 줍는 것까지도 단속합니다. 몰래 산에 올라가 채취하는 사람들이 단속에 붙잡히는 것을 보

았습니다. 채취 현장에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차를 세우고 산에 오르려는 순간에 붙잡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등산객 같은데 단속하는 사람들은 딱 알아봅니다. 배낭 안에 호미 같은 장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에게 산은 산이 아닙니다.
또 돈이 많은 은퇴한 분들 경우에는 강릉 지역에서 별장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산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은 그냥 산과 물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별장에 가 보았습니다. 산이 있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별장 앞을 지나는데, 담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별장에 온 사람들만 그 물을 즐길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고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마음에 제일 먼저 담기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신이 됩니다. 제일 먼저 마음에 담긴 것이 있으면 산이든 물이든 먼저 담긴 것과의 연관성 안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연관성 안에서 제일 먼저 마음에 담은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가치 있게 느끼고, 그렇지 않다면 무관심하게 내버려두게 됩니다. 이렇게 무관심한 것들에 대해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마음에 아무것도 담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음에 첫 번째로 담게 된 신의 정의는, 빈 마음에 채움을 허락하고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첫 번째 가치입니다. 이 첫 번째 가치가 신입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이나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첫 번째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마음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담고 연관성을 통해 가치를 분별하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속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삼각관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탁월한 점은 마음과 세상이라는 양자관계에서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을 마음에 담아도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불교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채워지도록 만들어진 마음을 자꾸 비우라고 하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철 스님이 많은 법어를 말씀하셨지만 돌아가실 때에는 수많은 대중을 속였다는 유언적 고백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음을 어떻게 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들어오실 유일한 채움의 당사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신다면 탁월함은 동시에 한계가 되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채우지 말라는 색즉공(色卽空) 공즉색(空卽色)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산을 보는데 산은 산도 아니며 돈이나 기업도 아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요'라는 말은 온 땅에 주의 이름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온 땅에는 삼라만상으로 가득합니다. 백합화도 있고 장미도 있고 가지가지 나무들이 있습니다. 바다 속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어떤 특정한 존재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표식입니다. 간판과 같은 기호입니다. 가리킴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이름입니다. 실제로 백합화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지만 가리킴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백합화 자체로서의 존재는 가리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리킴의 사건인 간판이나 표식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리키고 있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팔이라는 단어는 실존하는 나팔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집니다. 금관악기인 나팔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팔이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고 마음에서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키는 역사가 이 세상 만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는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산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산은 돈입니까? 아닙니다. 산은 도토리 따고 더덕 나고 송이버섯 따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산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산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가리킴의 관점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이름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름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인입니다.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드시고 지금 살아있도록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식이고 존재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의 기능은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땅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들로 가득 차있다는 노래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 절의 내용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삼라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느끼고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라는 말처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1등 되심을 반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영광은 1등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족이나 건강이나 사업보다 내 마음에서 1등이 되셨다는 것을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노래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대적자들과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찬 것을 발견한 사람이 왜 갑자기 원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내가 부딪혀야 할 대상들은 자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 속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직장의 부장님을 살려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또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라도 저항하거나 미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온 땅과 온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건을 만물 속에서 발견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젖먹이가 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누가 때려도 원수 갚을 생각이나 보복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파서 울 뿐이지 아무런 피해의식이나 손해의식조차도 갖지 못합니다. 이처럼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건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인간 세상에서 살 때에 젖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예수님이십니다. 빌라도가 로마 군인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자 갈대로 때리고 침을 뱉고 뺨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젖먹이와 똑같은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아프기에 괴로워 하셨을지라도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었고 알고 계셨으며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11절에서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당신을 재판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빌라도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먹이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헤드린공회에 붙잡혀 맞으면서도 젖먹이처럼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은 채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라고 노래합니다. 이 젖먹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들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라는 말씀도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기가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죽이지 못해 날뛸 것입니다. 그렇게 펄펄 날뛰어도 우리는 젖먹이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리키고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핵으로 도발해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정은을 살려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생기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앞에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을 때처럼 김정은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역사하도록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젖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들이 펄펄 뛰는 것 같아도 그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젖먹이처럼 빌라도와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지구를 뒤집어엎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류의 구원의 방향을 틀어놓으실 정도로 강하게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복자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삼라만상에서 하나님이 가리키고 있는 가리킴의 역사를 보고 있는 자들이 젖먹이처럼 살아갈 때에 그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죽게 내버려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평강과 만족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지키시는 것이고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몸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돌로 치는 자들을 벼락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깨지지 않고 오히려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정도로 진짜 강함을 주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는 돌로 치는 자들의 생명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원수 또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가득 차있다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시편이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논리적으로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도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뛸 수 있는데 그냥 젖먹이로서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연과 비교해 볼 때에 내 존재는 극히 작은 미물에 불과하고, 이 지구위에서는 극히 작은 바이러스 같은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주께서 돌보시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주님의 손가락을 강조한 것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장갑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1장 14~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

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유는 삼라만상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이고 그 결과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지고 계시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6절에 사람만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으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사람을 장갑처럼 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사람을 움직이면서 활동해나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손가락이 나를 장갑삼아 생각하게 하시며, 내가 활동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손가락이 활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에게서 일어났던 이러한 일이 똑같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이 들어와서 일 하실 때에는 그대로 움직일 것이고 그 외에는 젖먹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와 보복자들이 날뛰더라도 젖먹이로 살아갈 뿐입니다. 젖먹이는 때리면 맞아야하고 밥을 안 주면 못 먹고 아프면 울지언정 스스로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병든 내 몸을 보면서도 이 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병든 몸을 지금 하나님께서 살리고 계신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잘못되었으니 낫게 해달라는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신다면 그렇겠거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젖먹이의 삶을 살아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나를 장갑삼아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마지막에 다시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이나 활동이 하나님께서 나를 장갑삼아 끼신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들어와 계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면 만족과 기쁨이 생깁니다. 이럴 때에 이 땅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들에 대해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과 말들은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충만하신 만큼 나를 장갑삼아 이루시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사물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되고 우리는 젖먹이가 되고 장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모든 만물을 볼 때에 그것들은 내 마음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만물에 대해 뚫려있는 내 마음 자체를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생활화를 하는 것입니

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젖먹이가 되고 장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세상에 뚫려진 내 마음이 끊임없이 죽음으로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손에 만져지는 모든 사람과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식이 되어서 젖먹이가 되게 하시며 필요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끼시는 장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